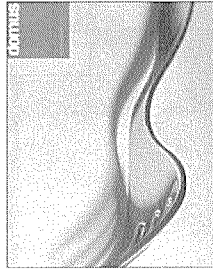


Domus
Architecture
a+u
건축문화
신건축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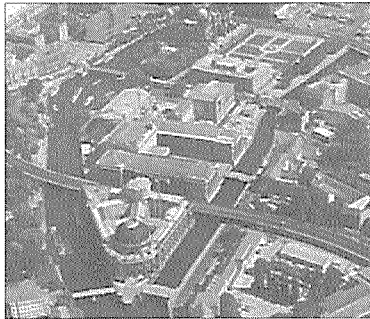
2000년 11월

본 호에서는 David Chipperfield의 마스터플랜에 의해 진행되는 베를린의 대대적인 박



물관 섬 재계획 프로젝트를 특징으로 다루고 있으며, Jean Nouvel, Morphosis의 최근작을 소개하고 있다. 과거 건축가의 작품들을 재평가하는 코너에서는 이탈리아의 근대 건축가 Giuseppe Vaccaro를 다루었다.

■ 특집 - 베를린의 박물관 섬 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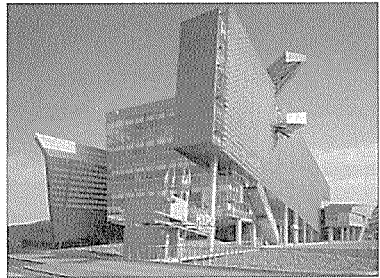


Friedrich Schinkel의 Altes Museum, Friedrich August Stüler의 Neues Museum 등 5개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베를린의 박물관 섬은 2차 대전을 통해 작품들이 반출되고 많은 부분이 훼손된 후 19세기 설립 당시의 “예술과 과학의 피난처”라는 목적에서 멀어진 채 존재해왔다. 1990년대 들어 국토가 통일되고 역사적 자료들이 모아지면서, 독일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루브르 박물관 리노베이션 계획이 문화적으로 성공한데 고무되어 다시 거대한 박물관 콤플렉스로서 이 지역이 갖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93년 이곳의 재개발에 대한 국제 설계 경기를 실시하여 Giorgio Grassi의 당선안과 Frank

O. Gehry의 안이 검토되었지만, 결국 2차 한정 설계 경기를 통해 David Chipperfield의 계획안이 채택되었다. 이 마스터플랜의 주된 요소는 새로운 입구 건물과 “고고학적 산책”으로, Nationalgalerie를 제외한 각 박물관들을 새 입구 건물로부터 “고고학적 산책”이라 불리는 지하 통로로서 연결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 사무소 및 건축가로는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Hilmer & Sattler & Albrecht, Heinz Tesar, Oswald Mathias Ungers가 있다. 이 건물군이 완성되면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 박물관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다.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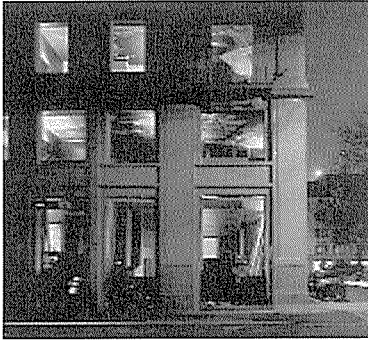
▶Morphosis의 Hypo Alpe Adria 은행 본사



도시와 근교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외곽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도시적 스케일에서 계획된 이 작품은, 대지 남측의 고밀도 오피스 부분에서는 도시적 컨텍스트를 따르고 있고 북쪽에 넓게 펼쳐진 저층부의 구성은 저밀도의 근교 조직 연장선상에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내재된 대전제는 도시와 근교라는 두 고유한 성질의 통합이다. 넓은 건물의 지붕은 주변에 펼쳐진 평야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과 그 밖의 프로그램은 수용하는 넓은 인공 대지도 또한 평야라는 컨텍스트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Jean Nouvel의 스위스 Lucerne Paradise 호텔

어둡고 차가운 현대적 느낌이 강조되고 있는 Nouvel의 이 호텔은 각 방들



을 영화 이미지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 앞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영화의 장면이 그려진 각 방의 천장을 보게되고, 그 이미지들은 건물의 새로운 파사드를 만들어낸다. 아울러 지하 레스토랑에서는 거울을 이용하여 거리의 풍경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벽면을 동적인 프레스코로 장식하고 있다. 아울러 ▶Michael Wilford의 대규모 공연장 및 전시관 건물인 Salford Lowry Center, ▶군건물을 개조하여 대학으로 만든 Studio 5+1, Chaix Morel의 Savona 대학 등 최근 작품을 소개하고 있고, ▶나폴리 우체국 본사 건물, Piacenza Unitá Galleana 유치원 등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근대 건축가 Giuseppe Vaccaro(1896-1970)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대별 정리와 재평가도 실려있다.

■ 오브젝

디자인 분야에서는 근대 디자인적 성향으로 돌아간 간결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Hackman과 Trabo 사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건축계 소식으로 ▶Tadao Ando의 Treviso Fabrica 대학 완공, ▶Richard Meier를 설계자로 지명한 미국 LA의 UCLA 캠퍼스 내부의 예술 복합관 계획, ▶Frank O. Gehry의 탈퇴로 Renzo Piano가 최종 당선자가 된 뉴욕타임즈 본사 설계 경기를 다루고 있으며, ▶저서 리뷰에서는 유명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해석, 도시와 영화, Rafael Moneo의 저서 등 최근 발간된 서적들을 평가하였다.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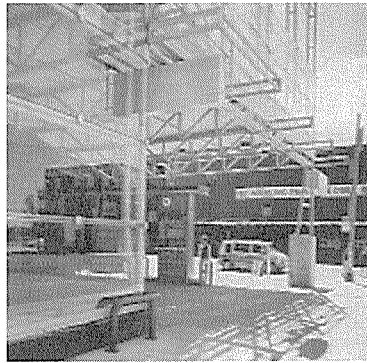
2000년 10월

최근 작품으로 스페인 Toledo에 지어진 옥외 에스컬레이터, 미국 캔서스 시티 합동역

의 Science City, 가벽을 이용한 미국 뉴욕 세차장 등을 소개하고 있는 본호는 아울러 미국 건축업계의 호황과 기획, 그리스 아테네 지하철 증축 공사 현장 소식 등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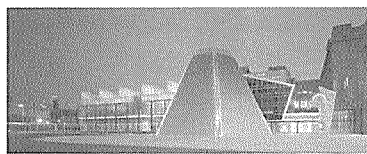
■ 근작 소개

▶Cybul & Cybul Architects와 Christopher K. Grabé의 미국 뉴욕 Chelsea 자동차 세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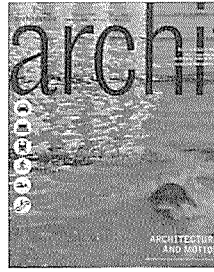


운행이 중지된 고가 화물 철도선 구조물에 덧붙여 만들어진 이 주유소 겸 세차장은 유리와 철재로 된 가벽을 전면으로 내세워 홍보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오후 시간대에는 허드슨 강의 풍경을 담아낸다.

▶Ehrenkrantz Eckstut & Kuhn Architects/SmithGroup의 미국 캔서스 시티 합동역 Scienc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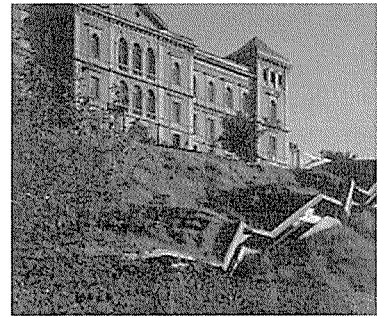


1914년 보자르풍으로 지어진 합동역



후면에 부가되어 지어진 Science City는 식물관, 극장 등을 포함한 거대한 과학관으로, 징크 패널, 유리 등을 사용한 기계적인 이미지를 통해 옛 건물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José Antonio Martínez Lapeña & Elías Torres Tur, Architects의 스페인 Toledo 에스컬레이터



중세 시대의 성벽에서부터 도시 중심부로 향하는 언덕에 설치된 이 옥외 에스컬레이터는 지형에 맞추어 전체가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 외에 ▶Tod Williams Billie Tsien and Associates의 미국 미시건 주 Bloomfield Hills Williams 수영장, ▶동양적 분위기로 만들어진 Shim-Sutcliffe Architects의 캐나다 Ontario Muskoka 목욕탕, ▶매우 간소한 형태로 만들어진 Conzett, Bronzini, Gartmann의 스위스 Viamala Suransuns 교량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실무계 소식

▶미국 설계사무소들의 복지 정책

전례 없는 건축업의 호황 속에서 미국 설계사무소들은 유능한 건축가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많은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전반적으로 임금을 10% 인상한 것과 별도로 휴가 프로그램 제공, 근무 시간 조정, 의복 간소화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8년간 건축 관련 일자리 규모가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업계의 인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북아일랜드에서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서 철거될 예정인 영국군 감시 초소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 ▶1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질 Extranet(사설 컴퓨터 네트워크)이 건설 감리에 미칠 영향이 소개되어 있다.

■ 문화

▶2004년 올림픽을 대비해 대규모 지하철 확장 공사에 착수한 후 거대한 고고 자료 발굴장이 된 그리스 아테네, ▶유럽과는 달리 카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미국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우주 정거장 계획에 대한 건축적 입장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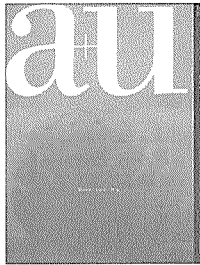
■ 기타

▶거대 트레일러를 소재로 한 Victoria Sambunaris의 사진 작품, ▶Richard Rogers와의 인터뷰, ▶Mies van der Rohe의 대표작 중 하나인 뉴욕 Seagram 빌딩의 매매 소식, ▶Frank O. Gehry의 근작 스페인 Bilbao 구겐하임 미술관 표면의 부식 현상, ▶Cesar Pelli, Gehry/SOM, Renzo Piano, Norman Foster의 작품으로 범위가 좁혀진 뉴욕 타임즈 본사 빌딩 현상설계 경기 소식,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릴 Santiago Calatrava 작품전, ▶Patkau Architects의 캐나다 몬트리올 중앙 도서관 당선안에 관한 기사들이 다뤄져 있다.

a+u

2000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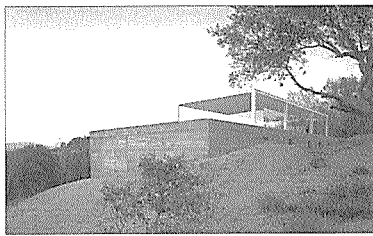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징은 '주택'으로 알베르토 캠프 바에자(Alberto Campo Baeza), 스티븐 홀(Steven Holl), 폴(Pool)등 13명의 작가/그룹의 주택 작품들이 되고 있다. 또한 마츠쿠마 히로시(松隈洋)와 켄트 라슨(Kent Larson)의 에세이를 비롯하여 스밀잔 라딕(Smiljan Radic)의 숲을 굽는 오두막, 게이리 슈메이커(Gary Shoemaker)의 루프 테라스의 증축 등 이색적인 작품도 실려있다.



■ 특집: 주택
▶ 이번 호의 특집인 주택(House/Casa/住宅)에서 전면에 내세운 테마는 없다. 여러 작가들의 개성 있는 주택작품들을 서로간의 공통점의 지적 없이 나열하고 있지만 모두다 비범한 형태 속에서 삶의 일상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집: 주택

▶ 이번 호의 특집인 주택(House/Casa/住宅)에서 전면에 내세운 테마는 없다. 여러 작가들의 개성 있는 주택작품들을 서로간의 공통점의 지적 없이 나열하고 있지만 모두다 비범한 형태 속에서 삶의 일상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 블라스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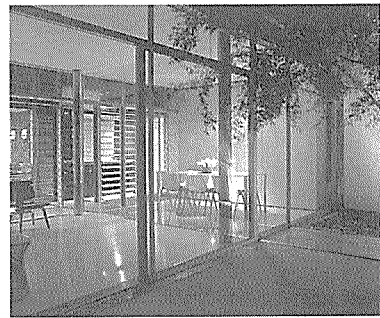
▶ 알베르토 캠프 바에자의 데 블라스 저택(De Blas House)는 마드리드 교외의 산들을 조망하는 북서면의 언덕 위에 세워졌다. 주택의 구성은 땅위에 동굴과 같은 공간을 갖는 상자가 전통적인 주택의 프로그램을 갖고 뿌리박고 있으며, 이 콘크리트상자를 기반으로 삼아 전망실의 역할을 하는 오두막과 같은 유리상자가 그 위에 올라선다.

이를 통해 스테레오토크(콘크리트상자부분)와 텍토닉(유리상자부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축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more with less'라는 그의 말을 보여주고 있다.



비엔나의 저택

▶ 폴의 '비엔나의 저택'은 독특한 외관과 공간구성이 눈길을 끈다.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한 이 주택은 겹쳐진 바닥판들이 계단의 경사면들에 의해 연속되어 있는 듯이 보이며, 마치 콘크리트로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창조해내고 이것이 외부의 형태로서 그대로 나타난 듯이 보여진다. 경사진 벽과 기둥들은 중력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벗어던지려는 시도로 보이며, 주택에서 느끼기 힘든 공간감을 소규모의 주택에서 잘 표현해 내고 있다.



바틀렛-페닝톤

▶ 버리 케이튼 할러데이(Burley Katon Halliday)의 바틀렛-페닝톤(Bartlett-Pennington)저택은 네오조지안 양식과 현대 미니멀리스트의 양식이 전체 건물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축으로 인해 통합되고 있다. 건축주가 매입한 콜로니얼풍의 석조주택을 전면으로 하여 그 뒤에 마련되었던 부수동들을 허물고 두 개의 박스형내의

건물을 새로 계획하였다. 이 세 개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복도를 기존 건물이 갖고있던 축선에서 계승하여 팔라디안식의 축선에 의한 배치와 미스적인 공간이 혼합하게 되었으며, 석조의 벽면과 베니어 합판과 유리가 지니는 상반된 물질성들 또한 혼합되고 있다.

▶ 이 외에도 장 뵈 봉메종(Jean-Paul Bonnemaïson)의 메종 드 빌라주(Maison de Village)는 프랑스 오프 프로방스 지방의 교회 유적의 부분들을 복원하여 만든 것으로 남아있는 벽들과 아치 등이 이용되어 새로운 주택으로 태어났다. 기존의 벽과 새로이 증축된 벽을 동일한 외관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조되는 유리나 철골부재들이 어우러져 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지방의 유산을 주택내부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콘 반 벨슨(Koen van Velsen)의 보스(Vos)저택은 상자모양 주택의 양 옆면은 이웃집과 합벽된 가운데, 전면과 천장, 후면에 이르는 3개면을 동일한 모양으로 처리하고, 이 3면으로 감싸여진 공간안에 또다른 공간을 삽입, 좁고 긴 대지에 수직으로 4, 5개층이 쌓이는 도심주거의 성격을 흥미로운 공간구성으로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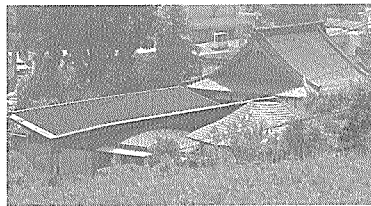
▶ 에세이로는 마츠쿠마 히로시의 '백색 추상이 목표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2차대전 후 50년간 일본 모더니즘 건축에서 백색 추상이 추구했던 가치들과 그들이 지니는 의미를 3개의 주택작품들을 통해 읽어내고 있으며, 켄트 라슨의 에세이 '미래의 주택(The Home of the Future)'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따른 미래주택 계획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건축문화

10월호

이번 호는 특집으로 '건축과 미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좌담회와 에세이 4편, 그리고 인터뷰 1편만이 실리는데 그쳐 그간 건축문화에서 기획해온 특집에 비하면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특집 외에도 人·空間研究所의 '조엔지(淨圓寺) 伝道회관 커먼홀(common hall)'과 카와이 토시아키(河井敏明) '카미교(上京)의 데이케어 센터' 등 최신작 5작품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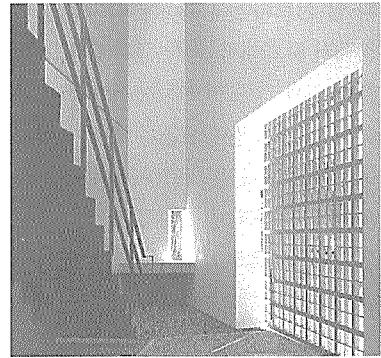
■작품



조엔지 전도회관 커먼홀

▶ 人·空間研究所의 '조엔지 전도회관 커먼홀'은 전통양식으로 된 본당의 목조건물에 연결하여 만든 철골조의 부속건물들이다. 골조는 철골이지만 내장재에는 목재를 섞었고, 지붕도 철판을 얹었지만 본당의 기와와 동일한 색체를 사용하는 등 전통양식의 본당 건물과 대조와 조화를 함께 이루려는 노력이 곳곳에 엿보인다. 특히 홀 부분의 V자형 단면의 지붕은 본당의 지붕 단면을 역전시킨 모양으로서 지붕들의 사선이 이루어내는 외관과 처마의 모습 등이 신·구간에 대조를 이루면서도 좋은 화합을 만들어내고 있다. 방문자들의 숙소 부분에는 변형된 팔각지붕이 쓰여졌다. 내부공간에도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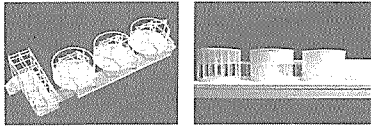
재로 마감된 천장면이나 변형된 마루 등에서 전통적 양식의 공간분위기를 연상시키면서도 원전과는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 발견되고, 흑색으로 단장된 철골구조들의 노출은 가볍고 경쾌한 일본의 목구조조와 마찬가지로 좋은 대비와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카미교(上京)의 데이케어 센터

▶ 카와이 토시아키(河井敏明) '카미교(上京)의 데이케어 센터'는 평범한 일본의 주택가에 새로이 증축된 부분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의 주택들을 연상시키는 입구부분의 두터운 흰 벽면은 주택지에 자리잡은 데이케어센터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데에는 충분할 만큼 주변과 대조적이다. 입구를 들어서면 증축된 부분은 기존 건물들로 둘러싸인 중정의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축부분의 유리와 철제 프레임들이 갖는 차가움과 정제된 기존건물들이 갖는 복합성에 대하여 신선한 부딪힘을 제공하고 있다.

▶ 사토 토시히코(佐藤敏宏)의 '千万家'는 직사각형 모양의 매스에 원통형 매스 3개가 줄지어 있는 모습의 전원주택이다. 외관도 다소 불품없는 집이지만 이 집이 예산 1000만엔이라는 극히 적은 예산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면 이 집의 값싼 재료들이 갖는 미덕과 평면형태에 숨겨진 유머를 읽어낼 수 있다(평면은 숫자 1000을 그대로 평면화 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외장재와 내장재, 설비의 시공방법등



千万家

에서도 극히 저예산으로 가능한 것들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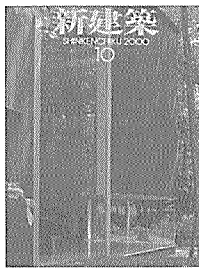
■ 특집: 건축과 미술

▶ 이번 특집은 현대의 예술활동이 점차 탈 장르화됨에 따라 건축과 미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각 장르의 상호 영향이 커져 가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현대적 상황의 성립요건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건축과 미술의 관계에 대해 물음을 던져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소개된 글은 오카자키 켄지로의 3인의 좌담회 기록인 '건축과 미술의 하드코어를 둘러싸고'와 4편의 에세이 '건축의 예술적 퇴행(테츠조 오오시마)', 'table/tableau에 관한 단상(마츠우라 히사오)', '건축과 미술을 묶는 키워드(이 가라시 코지 외4인)', '...혹, 「영화적인 것」은 건축을 꿈꾸는 것이 가능한가?(니부야 타카시)'가 게재되었으며, 스즈키 료오지와와의 인터뷰 '물질·공극·소외'가 함께 소개되었다.

신건축

10월호

이번 호는 신건축이 오랜만에 많은 최근작들을 테마별로 묶어 2개의 특집으로 엮어냈다. 이들 특집의 테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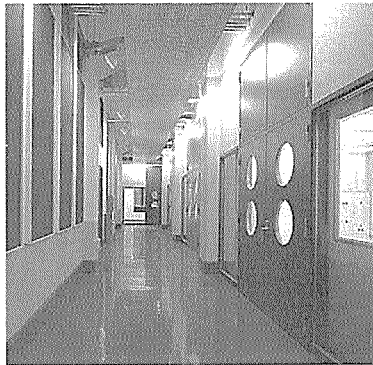


'리뉴얼(renewal)의 齟齬'과 '오피스는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리모델링과 신건

축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오피스건물들이 특집으로 묶인 것이다. 그밖에 최근작들로는 우노 모토무(宇野求)와 Phase어소시에이츠의 '빌라 후지이' 등이 소개되었다.

■ 특집1: 리뉴얼의 여러 양상

▶ 건물의 수명을 측정하는 방법들중에 동시기에 건축한 건물들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 때 까지의 기간을 지수로 삼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일본의 지수는 미국의 약 1/3, 영국의 약 1/5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나 건축자원의 유효활용, 산업폐기물의 감소 등 환경에 대한 의식의 향상과 부동산증권화 등이에 의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의해 리뉴얼되는 건축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리뉴얼은 설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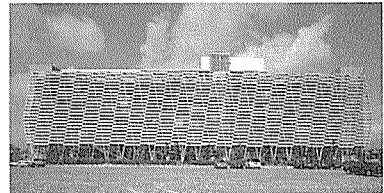
동경대학공학부2호관

▶ 이번 특집에서는 내진보강에 관련된 구조적 측면이나, 썩어내지나 고도 정보화정책에 의한 설비적 측면 등의 하드웨어부분 외에도 건축이 갖는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작품의 예들을 열거하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은 '동경대학공학부2호관', '上京의 데이케어센터', '미치노쿠 풍토관', '마루노우치 가로의 새로운 상업 파사드의 프로토타입', '노츠하루(野津原)다세대교류 플라자' 등 5개이며, 논문으로 鈴木博之의 '수상은 어디에서 사는가', 그리고 기사로서 1928년 안토닌레이몬드가 설계한 '이탈리아大使館夏季別荘改修' 등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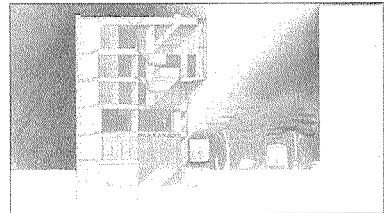
■ 특집2: 오피스는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서70년대에 걸친 경제성장과 더불어 오피스빌딩의 건설이 진행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 오피스에 OA기기가 도입되어 이를 바탕으로 쾌적함을 추구하게 되었고, 90년대부터 오피스는 그 존재방식을 새로이 모색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것은 경제상황의 변화, 기업활동의 재구축, IT기술의 진전, 환경문제, 도시문제 등, 사회의 다양한 국면이 현대 오피스를 다시 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창조력을 발휘하는 장으로서 오피스는 어떠한가 하는가, 나아가 기업이념·이미지를 내외로 어필하고 있는가, 오피스가 도시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의 물음이 던져진다.



소프트피아 재팬 드림코아



KK베스트셀러즈 본사

▶ 이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은 '오피스는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직설계사무소와 아뜰리에에서 제시한 그들의 나아갈 방향이다. 소개된 작품들로는 니켄세케이(日建設計)의 'NEC玉川르네상스시티'과 '우메다(梅田)다이빌딩', 오오에 타다츠(大江匡)의 '소프트피아 재팬 드림코아', 'informall@detroit', 야마모토 료오스케(山本良介)아뜰리에의 'KK베스트셀러즈 본사' 등이 소개되었다.